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의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류춘렬¹ · 류지영²

¹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²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정책센터장

목적 이 연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의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정책집행 이론에 근거하여 정책목표, 프로그램, 기관운영, 정책환경 요인의 네 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16명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에게 실시하고 보충면담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준의 인식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IPA를 활용하여 요인별 시급성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첫째 소외계층 과학영재의 기준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교육목표가 모호하며, 소외영재교육의 방향과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소외영재 프로그램 구성시, 소외영재들의 학업준비도 진단과 정서적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초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학업 및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소외영재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소외영재 발굴 · 선발 전문인력의 배치와,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업과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외영재들의 학업 · 정서적응을 위한 멘토링 지원체계와 전문상담인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영재정책 활성화를 위해 소외영재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론 소외영재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육제공과 함께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과 상담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보다 활발한 홍보와 참여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주제어 소외영재, 소외영재교육, 정책인식, 정책관리자, 학업 적응 멘토링

논문접수: 2023년 8월 23일, 논문심사: 2023년 11월 7일, 게재승인: 2023년 12월 4일

Corresponding to 류지영, jryu01@kaist.ac.kr

1. 서론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이후 법 ·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면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혜 비율은 2003년 0.25%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1.37%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초기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부터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사회 ·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출신이며,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소외계층 영재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이 일반 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김미숙, 조석희, 윤초희, 진석연, 2004;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 2003). 이로 인해 영재

교육 내에서 소외계층 관련 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2007년 말 관련부처인 교육행정부처와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관련 정책을 담은 5개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교육행정부처인 교육부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을 시행하려는 정책을 우선시 하였기에 교육복지 평등성의 관점에서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반면, 과학기술 행정부처로서 과학기술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우선시 하였기에 교육 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대학에 설치된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였다(과학기술부, 2007).

한편 과학기술부는 창조적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8년 전국에 9개 대학을 지정하여 과학영재센터를 설치하였다(정현철, 서혜애, 2008).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 현재 전국에는 27개 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수학, 과학, 정보 과학 영역의 영재들을 발굴하고 영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10% 이내 학생을 사회통합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는 4,514명이 등록 중인데, 이 중 사회통합전형으로 등록된 학생은 전체의 12%인 540명이다. 이는 2012년 1.2%, 2013년 2.7%, 2014년 3.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된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은 2005년에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소외계층에 관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이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부터이다. 이 정책에 따라 소외계층 영재들에게는 일반 영재들과는 다른 선발체계와 교육 등의 여러 지원책들이 강구되어 왔다.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영재교육정책의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교육부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소외계층 영재 발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4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23-’25)을 통하여 범부처, 범기관, 민간 협력 아래 소외지역, 소외계층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 대상자 학생 72,518명 중 6.56%인 4,762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제도는 ‘교육복지 평등성’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반면,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사회통합전형 우선선발 정책은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특정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계층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일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Corrigan, 2004; Rogers-Dillon, 1995; Sibicky & Dovidio, 1986). 이런 문제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정책이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과학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낙인효과 방지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목적이 상충되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정현철 외, 2015).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선별적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도구로서 도입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의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정책의 도입과 변화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에 이르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66년 미국 교육부는 교육적 평등기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콜만보고서(Coleman Report)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어떤 학교이든 상관없이 학생들의 가정배경, 즉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교육적 불평등이 생기므로, 교육은 선발의 기회만을 균등하게 주는 것만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미국의 교육복지정책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누구를 위하여’에 무게를 둔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3년 레이건 정부는 ‘교육 수월성을 위한 국가위원회’가 제출한 ‘위기의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그리고 교육여건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교육복지의 평등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교육복지의 수월성’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은 2002년 부시정부의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제정과 함께 고조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후 2009년 7월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업격차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평등성의 관점에 무게를 둔 교육복지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복지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관점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양정하, 1998).

우리나라는 교육복지의 개념이 1992년 대통령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복지정책의 영역과, 영역별 정책대상이 제시되었으

며, 교육복지정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류방란 외, 2013). ‘교육복지종합계획’에서 나타난 초기 교육복지정책은 주로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그리고 교육여건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실제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정책의 관점은 이후 2009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호에서 ‘자율형사립고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성문화되었다. 곧이어 2009년 8월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범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시·도 교육청별로 선발 및 지원 방안이 수립되었으며, 2010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서 과학고도 입학정원의 20%까지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안이 마련되었으며 추천·선발 절차, 학생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비 및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도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10% 이내 학생을 사회통합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입학한 사회통합전형 합격자의 경우, 일반전형 합격자와의 학력 격차로 인해 입학 이후 학업 적응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박숙희, 2009; 송경애, 2014). 이에 사회통합전형 합격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특별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들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Bridge Program)이 도입되게 되었다(최호성 외, 2012). 2014학년도 전형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기회균등전형’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다양성전형’으로 분류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특목고등학교의 입학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이 제도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하였다.

2.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많은 연구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과 경험들이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박효정 외, 2014). 빈곤한 가정은 어린 아동의 지능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후 학교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갖게 하며, 성인이 되면 열악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게 만든다고 한다(Corcoran, 2001; McLoyd, 1998).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영양섭취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지적 자극에도 덜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낮은 기대를 받고, 학업준비에 소홀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McLoyd, 1998). 빈곤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양육 기술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고, 소득이 많은 부모일수록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정익중, 2008), 교육적 성취에 차이가 생긴다.

영재교육 분야에 있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 출신 학생들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온 학생들보다 낮은 확률로 영재로 추천된다고 한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백인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백인 학생들보다 영재로 판별될 가능성이 3.8배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McBee, 2010). 초등 저학년때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을 추적한 연구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의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벌어짐을 확인하였다(Wyner, Bridgeland, & DiIulio, 2007). 저소득층 가정 배경을 가진 영재들은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학문적 지식을 접할 기회가 중산층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주변화(marginalization)로 인해 고유한 심리적·사회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려면 선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시에 일반 영재 학생들과는 다른 독특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Olszewski-Kubilius & Clarenbach, 2012).

하지만 저소득층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일반 영재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나, 개방적이고 용

통적인 사고 및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의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노벨 수상자들 중 저소득층 가정 배경을 가진 수상자들의 비율이 75%나 되었는데, 이들의 탁월한 성취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 성공에 대한 동기와 가치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Freeman, 2000). 저소득층에서 자란 영재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 때문에 영재교육의 영향을 받지 못했거나 잠재력이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영재 교육에의 관심과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에 처한 영재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영재교육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녀의 재능과 영재성을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환경, 자녀의 미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인 적응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후에 학생들은 과학적 태도와 자기유능감, 창의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석희, 김은진, 공지영, 2010). 또한 연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한 개별적 수업, 멘토링 제공,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지적인 향상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Fox, 2001; Vantassel-Baska, Patton, & Prillaman, 1989). 미국 이민가정의 학생들 중 교사의 추천을 통해 수학에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 언어 프로그램과 도전적인 수학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했던 호프(HOPE) 프로젝트는 3년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은 물론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또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ho, Yang, & Mandracchia, 2015). 영재교육 프로그램 25개를 평가한 연구는 소외계층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판별과정을 간소화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Briggs, Reis, & Sullican, 2008). 최근 소외계층 중학생 영재 189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대학생들과 학습멘토링을 실시한 연구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어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류지영, 김미진, 2017).

지금까지 연구들은 소외계층이 가진 환경의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영재교육의 효과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이에 교육복지 수월성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효과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했다는 낙인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고 이들이 지닌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인식 분석틀 설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이 가진 정책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집행 이론에 바탕을 두고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과학영재교육은 그동안 정책의 결정 단계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여겨진다. 이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이 하향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가정하에 상향적인 접근으로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인식을 탐색하려고 한다.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는 정책집행 단계에서 의사결정력을 가지게 되는데, 관리자가 가진 정책 목표 인식, 기관이 보유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 기관의 지원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 정책이 수행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책집행자가 정책수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현재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가 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정책집행 영향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A는 특정 평가 영역에 있어서 기대치에 대한 현재의 평가 수준을 고려해 보아, 평가 영역의 개선 사항에 대한 도출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 평가 속성의 평균 값을 알아내면 매트릭스로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책이나 교육 마케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임수원, 이혁기, 권기남, 2013).

가. 정책목표 요인

어떤 집행조직의 관리자가 인식하게 되는 정책기준과 정책목표는 집행조직 내부나 조직 간의 의사소통 및 추진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함은 물론이고, 정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 Meter & Van Horn, 1975). 이런 관점에서 과학영재교육기관의 관리자가 지니고 있는 정책목표와 정책기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정책목표와 관련한 정책의 구체성, 일관성,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집행기관 요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행 담당조직의 특성이 있다.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은 정책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는데(Smith, 1973),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집행 기관의 특성과 요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기관이 가진 고유한 전문성과 구성원 역량의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외영재들의 발굴과 선발 과정,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 집행관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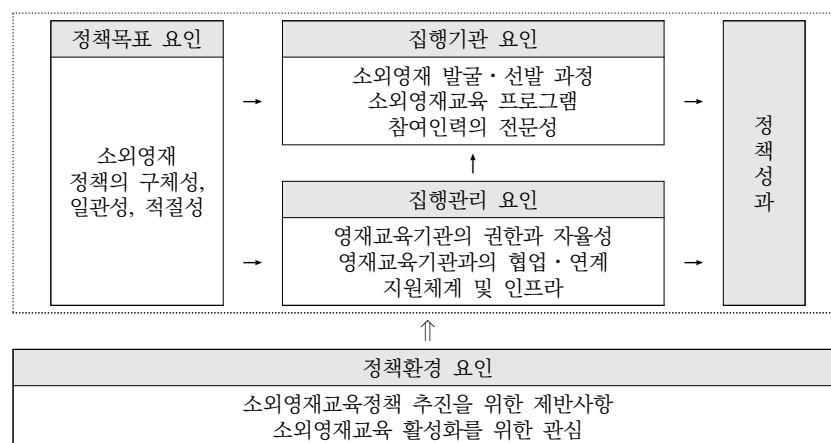
정책의 계획과 실행, 평가를 포함한 정책성과와 함께, 정책집행을 위한 지원과 관리의 수준에 의거하여 정책집행의 성과는 달라지기도 한다(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 정책 관리자들의 정책집행 관리에 대한 인식은 세부적으로는 기관이 가진 권한과 책임, 지원 체계, 평가 및 관리, 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정책집행 관리와 관련된 요인으로, 소외영재교육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기관 간의 협업과 연계, 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라. 정책환경 요인

정책환경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한편,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요인으로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로 구성된다(최병선, 1992). 정책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Smith, 1973), 이러한 관점에서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 정책환경과 관련하여 소외영재교육정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과 함께, 소외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정책집행이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설계된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정책집행 영향요인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목표 요인으로는 소외영재 정책목표와 함께 정책수립과정 및 정책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집행기관과 집행관리 요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요인으로는 소외영재의 발굴과 선발과정, 소외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집행기관 구성원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정책목표 요인과 집행관리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집행관리 요인은 정책집행시에 갖는 권한과 책임, 지원체계와 평가 및 관리로 구성되는데, 정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집행기관 요인에도 직접적인



[그림 1] 소외영재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 체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책환경 요인은 다양한 정책 집행 요인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과적으로 정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원장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을 관리자로 명명하고 있는데, 관리자인 원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재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로 참여한 교수들 중에서 선정되며, 과학영재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관리자들은 모두 남자로 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2.44년의 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전공은 수학과 물리 등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다루고 있는 영재교육 분야이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개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정책집행 영향요인 체계에 따른 과학영재교육기관

관리자의 정책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이 개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문항의 구성을 위해 과학영재교육,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최종적인 설문 문항은 소외영재교육정책, 기관 프로그램, 기관운영 및 지원체계, 그리고 정책 제반환경에 대한 인식의 4개 요인과, 11개 하위 요인, 5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별로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조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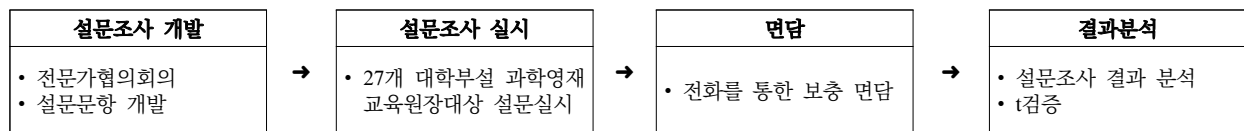
개발된 설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전국

<표 2>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의 소외영재교육정책 인식 설문 문항

설문 요인	세부 문항 구성
1.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1) 소외영재교육정책의 구체성 2)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일관성 3)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
2.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 소외영재 발굴·선발 과정 2)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 3) 참여인력의 전문성
3. 기관운영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1) 영재교육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2) 영재교육기관과의 협업·연계 3)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및 인프라
4. 정책 제반환경에 대한 인식	1) 소외영재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2) 소외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심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기관코드	성별	원장경력	전공	기관특성	영재교육원학생
A	남	1년	수학	초·중등 영재	109명
B	남	2년	생물	초·중등 영재	191명
C	남	2년	화학	초·중등 영재	139명
D	남	2년	생물	초·중등 영재	167명
E	남	1년	생물	초·중등 영재	159명
F	남	2년	생물	초·중등 영재	230명
G	남	5년	전산	초·중등 영재	226명
H	남	5년	화학	중등 영재	173명
I	남	2년	수학	초·중등 영재	133명
J	남	3년	생물	중등 영재	155명
K	남	1년	수학	초·중등 영재	292명
L	남	1년	물리	초·중등 영재	177명
M	남	2년	수학	초·중등 영재	169명
N	남	2년	생물	초·중등 영재	115명
O	남	3년	물리	초·중등 영재	266명
P	남	5년	물리	초·중등 영재	118명



[그림 2] 연구절차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응답 요청과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총 27명 중 1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후속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위해, 면담에 응한다고 동의한 응답자 7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에 전화면담이 이루어졌다. 문항별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는 IPA로 알아보았으며, 부가적으로 SPSS 25.0을 사용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IV. 분석 결과

1.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인 영재교육원장들의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소외영재교육정책 인식의 모든 요인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와 현재수준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소외영재교육의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중요도에서,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또는 교육목표($M=4.13$, $SD=0.48$),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목표($M=4.06$, $SD=0.83$), 대상자의 특성($M=3.94$, $SD=0.75$), 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M=3.75$, $SD=0.6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요인들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목표($M=3.19$, $SD=1.13$),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또는 교육목표($M=2.94$, $SD=0.90$), 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M=2.94$, $SD=0.90$), 대상자의 특성($M=2.81$, $SD=1.01$)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중요도는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발굴·선발 방법($M=4.31$, $SD=0.68$),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지원($M=4.31$, $SD=0.68$),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M=4.13$, $SD=0.93$), 기관 및 프로그램의 평가 관리($M=3.94$, $SD=0.66$), 참

<표 3> 소외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구분		전체(N=16)			
		중요도(SD)	현재수준(SD)	IPA	t
정책의 구체성	1)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목표	4.06(0.83)	3.19(1.13)	0.88	-2.573*
	2)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	3.94(0.75)	2.81(1.01)	1.13	-3.435**
	3)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또는 교육목표	4.13(0.48)	2.69(0.98)	1.44	-4.552**
	4) 소외영재교육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	3.75(0.66)	2.94(0.90)	0.81	-2.931**
정책의 일관성	1) 소외영재교육 대상자 발굴·선발 방법	4.31(0.68)	2.38(0.93)	1.94	-6.560**
	2)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4.13(0.93)	2.25(0.83)	1.88	-5.000**
	3) 소외영재교육 참여인력의 운용	3.75(0.97)	2.19(1.01)	1.56	-3.738**
	4) 소외영재교육 기관운영 지원(지원예산 포함)	4.31(0.68)	1.94(0.97)	2.38	-6.746**
	5) 소외영재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관리	3.94(0.66)	2.31(1.04)	1.63	-4.468**
정책의 적절성	1)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규모(또는 범위)	3.63(0.70)	2.69(1.36)	0.94	-2.270*
	2)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4.50(0.61)	2.38(0.93)	2.13	-6.755**
	3) 학생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육 제공	4.13(0.78)	2.25(0.90)	1.88	-5.514**
	4)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적 처치	4.38(0.60)	2.38(1.27)	2.00	-4.781**
	5) 소외영재교육과 상급학교 진학과의 연계	3.56(0.86)	2.44(0.86)	1.13	-3.922**

* $p<.05$, ** $p<.01$

여인력의 운용($M=3.75$, $SD=0.97$)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결과, 소외영재교육 대상자 발굴·선발 방법($M=2.38$, $SD=0.93$), 소외영재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관리($M=2.31$, $SD=1.04$),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M=2.25$, $SD=0.83$), 참여인력의 운용($M=2.19$, $SD=1.01$), 기관운영지원($M=1.94$, $SD=0.97$)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모두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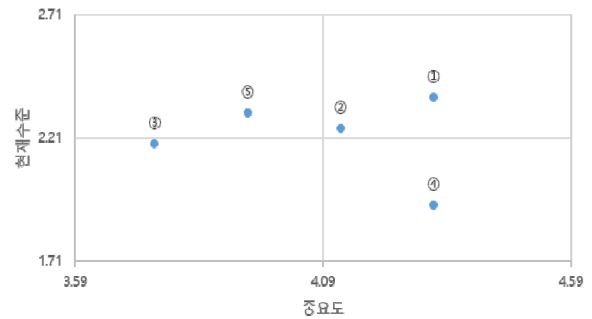
세 번째로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M=4.50$, $SD=0.61$), 소외영재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 처치($M=4.38$, $SD=0.60$), 학생의 상황에 따른 교육제공($M=4.13$, $SD=0.78$),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규모($M=3.63$, $SD=0.70$), 소외영재교육과 상급학교로의 진학($M=3.56$, $SD=0.86$)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현재 수준은 중요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외영재교육 대상자 규모($M=2.69$, $SD=1.36$), 소외영재교육과 상급학교로의 진학($M=2.44$, $SD=0.86$),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M=2.38$, $SD=0.93$),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 처치($M=2.38$, $SD=1.27$), 학생의 상황에 따른 교육제공($M=2.25$, $SD=0.9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의 시급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IPA를 분석하였다([그림 3~5] 참조). 분석결과 첫 번째로 정책의 구체성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또는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1.44),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특

성(1.13),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 목표(0.88), 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0.81)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정책의 일관성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지원예산을 포함한 기관운영지원(2.38), 소외영재교육 대상자 발굴 및 선발 방법(1.94),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1.88), 프로그램 평가와 관리(1.63), 소외영재교육 참여인력 운용(1.56)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2.13),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적 처치(2.00), 영재학생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육 제공(1.88), 상급학교 진학과의 연계(1.13),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규모(0.9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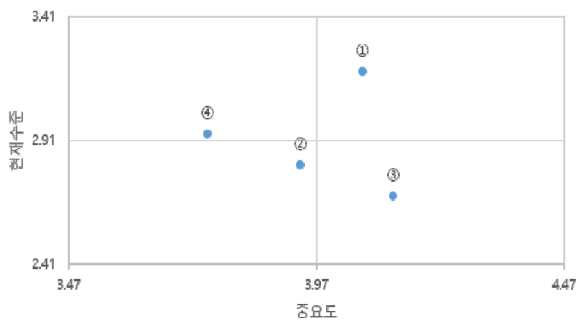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에게 대한 심층면접에서, 소외영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반영재와는 다른 소외영재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에 따른 소외계층 영재의 판별 및 선발 방안 제시와 함께 일반영재와 다른 소외영재의 특성을 고려

소외영재교육 정책의 일관성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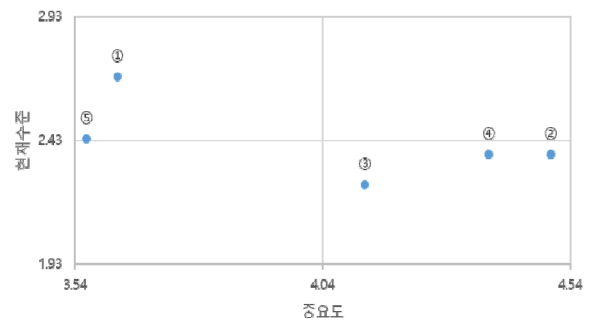
[그림 4] 정책의 일관성 인식

소외영재교육 정책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



[그림 3] 정책의 구체성 인식

소외영재교육 정책의 적절성 대한 인식



[그림 5] 정책의 적절성 인식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외영재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영재와는 다른 소외영재의 특성들을 명확히 추출하고, 이에 대한 판정 및 선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소외영재는 일반영재와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A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관리자 등은 소외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운영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외영재학생들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영재와 동일한 교육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마다 일시적이고,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단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B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마지막으로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관리자 등은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낙인효과 방지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영재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현장 관계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소외영재교육원생과 일반 영재교육원생 사이의 조화 및 융합입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식사 제공을 부모님들이 순서를 정하여 제공하는데 소외계층의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 위화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이 선발되는 경우에 동일조건에서 선발되지 않고, 정원의 몇 %이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은 마치 소외계층학생이 실력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입학하였다는 무언의 무시를 당하는 우를 가져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C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2.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소외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식의 모든 요인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현재수준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소외영재 발굴·선발에 대한 인식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소외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선발도구 및 방법의 활용($M=4.06$, $SD=0.75$),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업준비 진단 프로그램($M=4.00$, $SD=0.87$), 소외 영재학생의 가정·심리적 환경과 같은 정서적 특성 분석($M=3.94$, $SD=0.66$)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 발굴·선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준의 인식에서도 선발도구 및 방법의 활용($M=2.81$, $SD=1.13$),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업준비 진단 프로그램($M=2.31$, $SD=1.10$), 소외 영재학생의 가정·심리적 환경과 같은 정서적 특성 분석($M=2.31$, $SD=1.10$)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심화학습 기회 제공($M=4.13$, $SD=0.86$),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M=4.06$, $SD=0.56$), 학업 및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M=3.88$, $SD=1.17$), 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M=3.75$, $SD=0.90$), 기초학업 지원($M=3.69$, $SD=1.36$), 개인 필요에 의한 학

습선택 지원(M=3.63, SD=1.11) 프로그램의 순으로 주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습전략 코칭(M=3.38, SD=0.99),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M=3.13, SD=0.93), 체계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M=3.00, SD=1.12)은 낮은 순위를 나타냈었다. 한편 현재 수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심화학습 기회제공(M=3.00, SD=1.41),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M=2.88, SD=1.17), 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M=2.56, SD=1.17), 학업 및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M=2.44, SD=0.93), 기초학업 지원(M=2.38, SD=1.17), 개인 필요에 의한 학습선택 지원(M=2.38, SD=1.05), 학생들의 학습전략 코칭(M=2.19, SD=1.01),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M=2.19, SD=0.88), 체계적인 입시지원(M=1.88, SD=1.05)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하여 현재 프로그램의 구성 수준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참여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4.25, SD=0.66),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정책목표(M=4.19, SD=0.73), 교수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4.19, SD=0.63),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4.13, SD=0.86)에 대한 이해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부

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과의 소외영재교육 참여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현재 수준은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3.19, SD=0.81),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정책목표(M=2.94, SD=1.14),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2.88, SD=1.05), 교수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M=2.81, SD=0.8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수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의 시급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IPA를 분석하였다(그림 6~8 참조). 첫 번째로 소외영재교육 발굴·선발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소외영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업준비도 진단(1.69), 정서적 특성 분석(1.63), 선발 도구 및 방법의 활용(1.25)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학업 및 생활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1.44), 기초학업 지원 프로그램(1.31), 개인 학습 선택 지원 프로그램(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중요도에 비하여 현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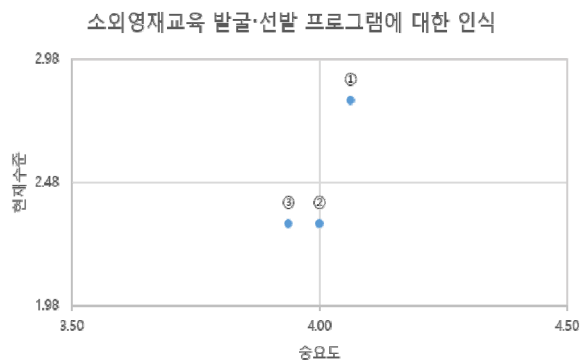
<표 4>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구분		전체(N=16)			
		중요도(SD)	현재수준(SD)	IPA	t
발굴·선발	1) 소외영재 특성을 고려한 선발도구 및 방법의 활용	4.06(0.75)	2.81(1.13)	1.25	-4.038**
	2) 소외영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업준비도 진단	4.00(0.87)	2.31(1.10)	1.69	-5.646**
	3) 개인의 가정·심리적 환경 등 정서적 특성 분석	3.94(0.66)	2.31(1.10)	1.63	-5.665**
프로그램 구성	1) 기초학업 지원 프로그램	3.69(1.36)	2.38(1.17)	1.31	-3.238**
	2)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4.13(0.86)	3.00(1.41)	1.13	-3.000**
	3) 체계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	3.00(1.12)	1.88(1.05)	1.13	-3.435**
	4) 개인 필요에 의한 학습선택 지원 프로그램	3.63(1.11)	2.38(1.05)	1.25	-2.953**
	5) 학생들의 학습전략 코칭 프로그램	3.38(0.99)	2.19(1.01)	1.19	-3.135**
	6)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3.13(0.93)	2.19(0.88)	0.94	-2.531*
	7) 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3.75(0.90)	2.56(1.17)	1.19	-3.230**
	8) 학업 및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3.88(1.17)	2.44(0.93)	1.44	-3.616**
	9)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4.06(0.56)	2.88(1.17)	1.19	-3.578**
참여인력 전문성	1)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정책목표 이해도	4.19(0.73)	2.94(1.14)	1.25	-4.038**
	2)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 이해도	4.13(0.86)	2.88(1.05)	1.25	-4.226**
	3) 교수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 이해도	4.19(0.63)	2.81(0.81)	1.38	-4.793**
	4)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 이해도	4.25(0.66)	3.19(0.81)	1.06	-3.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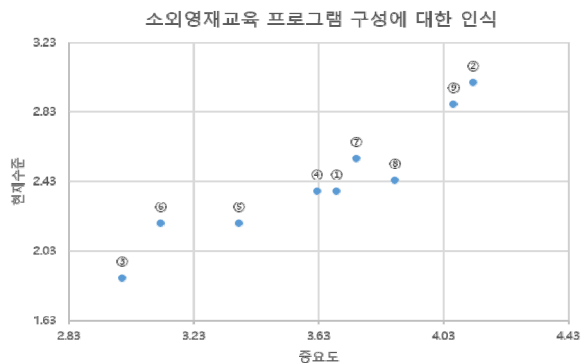
*p<.05, **p<.01

선이 필요함을 보인다. 세 번째로 소외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에서 시급한 영역은 교수자의 소외영재에 대한 특성 및 교육이해도(1.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에 대한 정책목표(1.25), 소외영재의 특성 및 교육(1.25),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이해도(1.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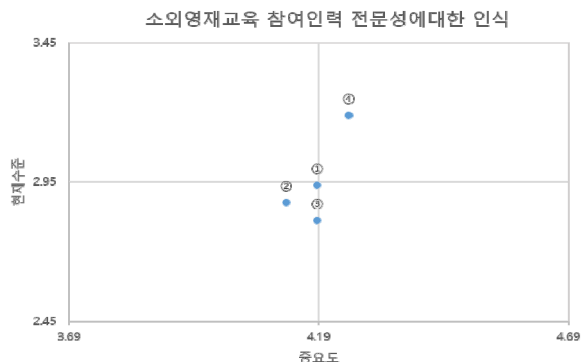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에게



[그림 6] 발굴·선발 인식



[그림 7] 프로그램 구성 인식



[그림 8] 참여인력 전문성 인식

대한 심층면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소외영재 발굴·선발과 관련한 문제는 소외영재의 학업준비도 진단과 정서적 특성 분석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관리자들은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업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간의 학습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특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관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전문가 상담)이 제공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높아질 듯하며, 일정기간 기초학업능력을 배양하는 선교육후에 선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소외영재들의 기초학업역량 함양을 위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소외영재의 학업 및 생활적응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외영재 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 교육자 배정이 필요하며, 기관 관리자 혹은 운영담당자들에게도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E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역량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현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내부운영인력이 관리자와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2~3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인력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부설영재원이 대체적으로 소외된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을 하고 싶어도 소외영재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부설 영재원의 행정력은 원장

1명, 직원1명으로 매우 영세하므로, 소외영재교육을 위한 여력은 없습니다.- (C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3.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의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 인식의 모든 요인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와 현재수준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발굴 및 선발(M=4.44, SD=0.61), 교육내용 구성(M=4.31, SD=0.68), 예산집행(M=4.19, SD=0.73), 교육운영(형태, 방법 등)(M=4.13, SD=0.86)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각 요인에 대하여 현재 수준은 교육내용 구성(M=3.31, SD=1.04)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뒤를 이어 소외영재 교육운영(형태, 방법 등)(M=3.25, SD=1.20), 발굴·선발(M=3.19, SD=1.13), 예산집행의 권한과 자율성(M=3.13, SD=1.2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소외 영재교육기관의 협업·연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중요도 인식 분석 결과, 교육청, 학교와의

협업과 연계(M=4.31, SD=0.7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지역 내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과의 협업·연계(M=4.13, SD=0.70), 교육 담당 부처 간(교육부, 여가부-과기정통부간) 협업·연계(M=4.00, SD=0.71),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협업·연계(M=3.50, SD=1.06)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영재교육기관의 협업·연계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은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M=2.19, SD=1.01)과의 협업·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평균값이 2.19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를 이어, 지역 내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과의 협업·연계(M=1.88, SD=0.70), 교육청, 학교와의 협업 및 연계(M=1.75, SD=0.97), 부처 간(교육부, 여가부 등-과기정통부간) 협업·연계(M=1.75, SD=0.90)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소외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및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개별 학업·정서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체계(M=4.38, SD=0.60), 전문 상담인력 등 외부 전문가 지원체계(M=4.19, SD=0.81),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지원체계(M=3.75, SD=0.90), 학습·정서발달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체계(M=3.75, SD=0.75),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문화적 지원 체계(M=3.50, SD=0.79) 순으로

<표 5>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구분		전체(N=16)			
		중요도(SD)	현재수준(SD)	IPA	t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1) 소외영재 발굴·선발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4.44(0.61)	3.19(1.13)	1.25	-4.697**
	2) 소외영재 교육내용 구성의 권한과 자율성	4.31(0.68)	3.31(1.04)	1.00	-3.038**
	3) 소외영재 교육운영(형태, 방법 등)의 권한과 자율성	4.13(0.86)	3.25(1.20)	0.88	-2.206*
	4) 소외영재 교육을 위한 예산집행의 권한과 자율성	4.19(0.73)	3.13(1.22)	1.06	-3.437**
기관 간 협업·연계	1) 부처 간(교육부, 여가부 등-과기정통부간) 협업·연계	4.00(0.71)	1.75(0.90)	2.25	-7.268**
	2) 교육청, 학교와의 협업 및 연계	4.31(0.77)	1.75(0.97)	2.56	-8.891**
	3) 지역 내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과의 협업·연계	4.13(0.70)	1.88(0.70)	2.25	-9.000**
	4)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협업·연계	3.50(1.06)	2.19(1.01)	1.31	-3.323**
지원체계 및 인프라	1) 교육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지원체계	3.75(0.90)	2.38(1.17)	1.38	-3.467**
	2) 개별 학업·정서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체계	4.38(0.60)	2.25(1.09)	2.13	-6.755**
	3) 전문상담인력 등 외부 전문가 지원체계	4.19(0.81)	2.13(0.99)	2.06	-5.745**
	4) 학습·정서발달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체계	3.75(0.75)	1.88(0.93)	1.88	-5.724**
	5)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문화적 지원 체계	3.50(0.79)	2.38(1.11)	1.13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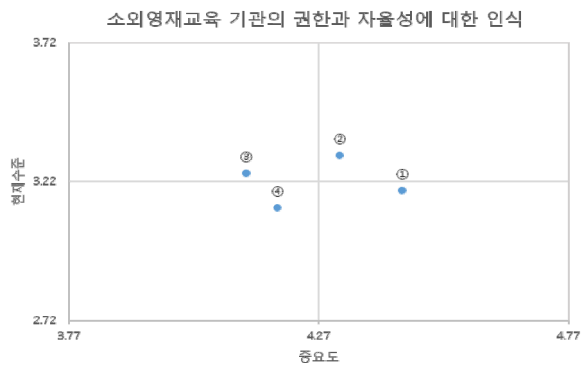
*p<.05, **p<.01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현재 수준은 교육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지원체계($M=2.38$, $SD=1.17$)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문화적 지원 체계($M=2.38$, $SD=1.11$), 개별 학업·정서 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체계($M=2.25$, $SD=1.09$), 전문 상담 인력 등 외부 전문가 지원체계($M=2.13$, $SD=0.99$), 학습·정서 발달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체계($M=1.88$, $SD=0.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의 시급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IPA를 분석하였다([그림 9~11] 참조). 첫번째로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소외영재 발굴과 선발(1.25), 예산집행(1.06), 교육내용의 구성(1.00), 교육운영(0.88)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협업·연계에서 시급

한 정책개선 영역은 교육청, 학교와의 협업·연계(2.56), 부처간, 지역내 아동센터 등과의 협업·연계(2.25),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협업·연계(1.31) 순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지원체계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학업·정서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2.1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상담인력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2.06), 소외영재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관리(1.88), 소외영재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의 지원(1.3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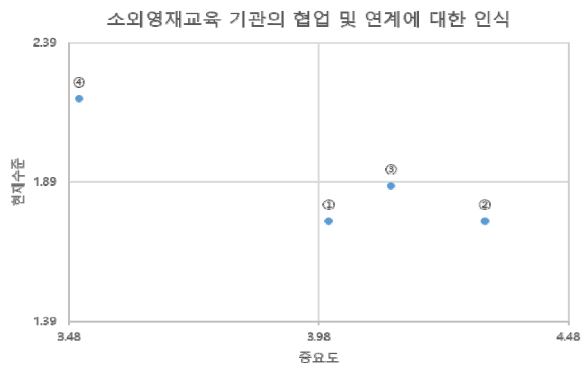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과 관련하여 관리자들은 소외영재 선발비율 등 일정 부분 기관이 달성해야 할 지침과 기준은 있으나, 발굴·선발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는 부여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외영재 발굴·선발에 대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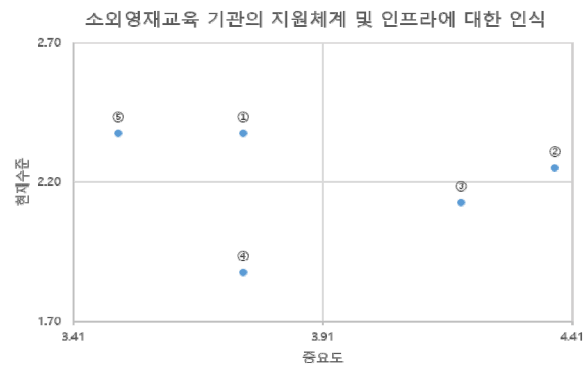
[그림 9] 권한과 자율성 인식

소외계층 선발의 방향은 주로 내부 선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외계층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는 고민의 대상이며, 소외영재 선발을 전담할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F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기관 협업 및 연계와 관련하여 관리자들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영재교육 지원센터 등 시도교육청·학교와



[그림 10] 협업·연계 인식



[그림 11] 지원체계 및 인프라 인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간 협업·연계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뽑고 싶어도 지원율이 낮습니다. 일선 학교의 소외계층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부설 영재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해줄 누군가의 다리역할이 필요합니다.- (G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기관 지원체계 및 인프라와 관련하여 관리자들은 소외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소외영재교육 관련 중앙 차원의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재원은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소외영재교육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며, 소외영재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F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4. 소외영재교육정책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들의 정책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소외영재교육정책 제반 환경 인식의 모든 요인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와 현재수준에는 의미있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정책 추진 제반 사항에 대한 대부분의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정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M=4.50, SD=0.61)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정적 예산 확보(M=4.38, SD=0.60),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M=4.38, SD=0.70), 소외영재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당위성(M=4.25, SD=0.75)과 기관 및 관계자 인센티브 등 참여동기(M=4.13, SD=0.78)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소외영재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의 현재 수준은 대체로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M=2.63, SD=0.99), 사회적 가치와 당위성 확보(M=2.63, SD=0.99), 안정적 예산 확보(M=2.25, SD=1.09),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M=2.19, SD=0.81), 기관 및 관계자 인센티브 등 참여동기 확보(M=2.00, SD=0.94)의 순으로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두번째로 소외영재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M=4.31, SD=1.1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M=4.25, SD=0.97), 기관 관리자 및 구성원(M=4.00, SD=1.06), 일반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M=3.94, SD=0.97), 일반 영재학생/학부모(M=3.38, SD=1.22)의 순으로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소외영재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재 수준의 인식 분석 결과, 기관 관리자 및 구성원(M=2.81, SD=1.13)

<표 6> 소외영재교육정책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구분		전체(N=16)			
		중요도(SD)	현재수준(SD)	IPA	t
정책 제반 사항	1) 소외영재교육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4.38(0.60)	2.25(1.09)	2.13	-6.487**
	2) 소외영재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당위성 확보	4.25(0.75)	2.63(0.99)	1.63	-5.398**
	3) 소외영재교육 관련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4.38(0.70)	2.19(0.81)	2.19	-7.892**
	4) 소외영재교육정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4.50(0.61)	2.63(0.99)	1.88	-5.514**
	5) 기관 및 관계자 인센티브 등 참여동기 확보	4.13(0.78)	2.00(0.94)	2.13	-6.755**
정책 활성화	1) 소외영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4.31(1.10)	2.19(0.81)	2.13	-5.842**
	2) 소외영재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	4.25(0.97)	2.19(0.95)	2.06	-4.994**
	3) 기관 관리자 및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	4.00(1.06)	2.81(1.13)	1.19	-3.048**
	4) 일반 영재학생/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	3.38(1.22)	2.06(0.90)	1.31	-2.835*
	5) 일반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	3.94(0.97)	2.50(0.79)	1.44	-3.715**

*p<.05, **p<.01

의 관심과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며, 일반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M=2.50$, $SD=0.79$), 소외영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M=2.19$, $SD=0.81$), 소외영재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M=2.19$, $SD=0.95$), 일반 영재학생/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M=2.06$, $SD=0.90$)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의 시급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IPA를 분석하였다([그림 12~13] 참조). 첫째, 소외영재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소외영재교육 관련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마련(2.19),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참여동기 확보(2.13), 안정적인 예산확보(2.13) 순으로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정책 활성화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소외영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2.13), 소외영재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2.06), 일반대중의 긍정적 인식(1.4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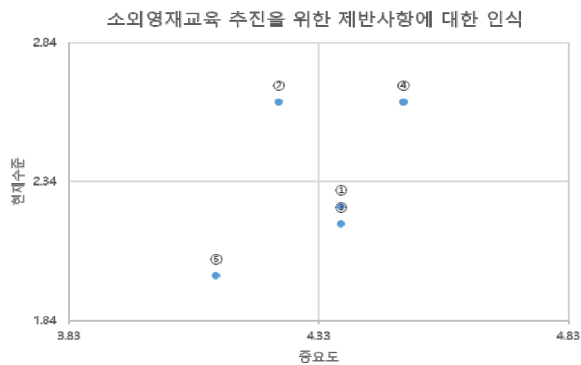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와

의 심층면접에서, 소외영재교육정책 제반환경과 관련하여 관리자들은 소외영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별도의 소외영재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소외영재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외영재교육은 교육특성상 영재원에서 담당하기보다는 별도의 소외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도 필요하며, 영재원의 소외영재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F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리자)

V. 논의 및 결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관리자인 원장은 과학영재교육의 정책을 결정한 후에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영재교육원의 정책인식에 대한 수준과 정책목표 및 기준에 대한 태도는 정책의 방향과 최종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목표 요인, 정책집행 조직 요인, 정책집행 관리 요인, 정책환경 요인의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문항으로는 소외계층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이 갖추어야 할 중점 요인을 배치하여,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요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의 정책집행 요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현재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 정책집행의 실태를 가늠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현재수준과의 차이(IPA)를 통해 소외



[그림 12] 정책 제반 사항에 대한 인식



[그림 13] 정책 활성화에 대한 인식

계층 과학영재교육 정책집행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우선 소외계층 과학영재교육의 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정책의 구체성에서 소외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또는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소외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 목표, 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의 순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지원예산을 포함한 기관운영지원, 소외영재교육 대상자 발굴 및 선발 방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순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교육적 처치, 영재학생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교육 제공, 상급학교 진학과의 연계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은 소외영재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관계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목표나 현장과 공유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국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권혁주 외(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소외영재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인식과 관련하여, 소외영재 발굴·선발, 프로그램의 구성, 참여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관리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외영재의 발굴과 선발에 있어서 정책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소외영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업준비도 진단, 정서적 특성 분석, 선발 도구 및 방법의 활용순으로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서 필요한 정책개선 영역은 학업 및 생활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기초학업 지원 프로그램, 개인학습 선택 지원 프로그램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교수자의 소외영재에 대한 특성 및 교

육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기관 관리자의 소외영재에 대한 정책목표, 소외영재의 특성 및 교육, 운영담당자의 소외영재 특성 및 교육이해도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소외영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특성에 맞출식이어야 하며, 그들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의 전문성과 함께, 부여된 권한과 책임, 조직을 구성하는 정책집행자의 성향은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Van Meter & Van Horn, 1975), 소외영재들을 위한 교육 담당자와 관리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전문인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인력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소외영재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기관의 협업·연계, 기관 지원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영역은 소외영재 발굴과 선발, 예산 집행, 교육내용의 구성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협업·연계에서는 교육청, 학교와의 협업·연계, 부처간, 지역내 아동센터 등과의 협업·연계,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의 협업·연계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 기관의 지원체계에서 시급한 정책개선 영역은 학업·정서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 전문 상담인력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 소외영재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관리, 소외영재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의 지원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를 포함한 정책성과를 비롯하여 정책집행을 위한 지원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Cooper et al.,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소외영재교육 기관 운영 및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기관의 협업·연계, 기관 지원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소외영재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외영재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관련된 인식조사에서, 소외영재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참여동기 확보,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순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영재교육정책 활성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소외영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소외영재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 일반대중의 긍정적 인식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책이 실행되는 환경은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요인으로,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로 구성되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도 달라질 수 있다(Smith, 1973). 한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때 정치·경제·사회적 조건들은 정책집행자나 정책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기도 하고,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Van Meter & Van Horn, 1975). 소외영재교육정책의 제반환경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소외영재와 학부모를 비롯한 기관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의 교육적 관심과 참여의지는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중 직접적인 정책대상인 소외영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외영재들이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교육기회 박탈이 있는 동시에, 소외영재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참여의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영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외영재들만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리자들과의 소외영재교육 정책목표 인식에서 드러나듯 성공적인 소외영재교육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모호한 정책목표, 정책일관성의 부재, 적절한 정책수단의 부재는 소외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며, 소외영재

교육정책집행의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자원과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지원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또한 궁극적으로 소외영재교육의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정책환경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재된 윤리와 사회정의에 따라 결정되며(Cooper et al., 2004), 정책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지지가 확보되어야 정책의 가치와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Mazmanian & Sabatier, 1983).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소외영재교육의 정책환경과 제반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영재교육에 대한 정책대상과 정책집행 관계자의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후속연구로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현장의 교육관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접근과 함께 현장에 있는 교육관계자들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이 설계되어야 교육대상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7). **제1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08~’12).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 권혁주, 이재성, 동그라미, 문현경 (2010). BK21사업의 정책 집행분석: 사회I계열의 현장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3), 35-60.
- 김미숙, 조석희, 윤초희, 진석연 (2004). **중학생 영재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탐색**(수탁연구 CR2004-40).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 (2003). **초등 영재학생의 지적·정의적 행동특성 및 지도방안 연구**(수탁연구 CR2003-25).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김경애, 김기은, 김진경 (2013).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 모니터링 보고서**(기술보고 TR2013-15-1). 한

- 국교육개발원 .
- 류지영, 김미진 (2017). 소외계층 잠재적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영재교육연구**, 27(4), 527-546.
- 박숙희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8(3), 5-21.
- 박효정, 장수정, 이재덕, 김한나 (201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중단연구(II)**(수탁연구 CR2014-44). 한국교육개발원 .
- 송경애 (2014). 소외계층 영재의 지능과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4(6), 1039-1051.
- 양정하 (1998). 영국 사회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론에 관한 연구. **경남전문대학 논문집**, 26(1), 269-284.
- 이석희, 김은진, 공지영 (2010). 과학 실험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과학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초등과학교육**, 29(4), 538-551.
- 임수원, 이혁기, 권기남 (2013). IPA 분석을 통한 대학 스포츠 리그제 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 24(4), 732-742.
- 정익중 (2008). 아동청소년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2008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96-122.
- 정현철, 류춘렬, 박경진, 최진수, 김희목, 이규성, 홍성호 (2015).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연구보고 RR2017-015).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 정현철, 서혜애 (2008).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영재교육연구**, 18(2), 313-341.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최호성, 구교석, 김경애, 김철, 박창언, 변지수, ... 진석언 (2012). **과학고발전사업단(3차년도) 운영 결과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
- Briggs, C. J., Reis, S. M., & Sullivan, E. E. (2008). A national view of promising programs and practices for culturally, linguistically, and ethnically divers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52(2), 131-145.
- Cho, S., Yang, J., & Mandracchia, M. (2015). Effects of M3 curriculum on mathematics and English proficiency achievement of mathematically promis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6(2), 112-142.
- Cooper, B. S., Fusarelli, L. D., & Randall, E. V. (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NY: Allyn & Bacon.
- Corcoran, M. (2001).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for children: Child and adult outcomes. In S. Danziger & R. Haveman, (Eds.). *Understanding poverty* (pp. 127-14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rigan, P. 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765-776.
- Fox, M. (2001). Open gate. *Gifted Education Communicator*, 32(4), 27-29.
- Freeman, J. (2000). Families, the essential context for gifts and talents. In K. Heller, F. J. Monks, R. Sternberg & R.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669-683). Oxford: Pergamon Press.
- Mazmanian, D., & Sabatier, P. (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Glenview, IL: Scott, Foresman & Company.
- McBee, M. T. (2010). Examining the probability of identification for gifted programs for students in Georgia elementary schools: A multilevel path analysis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54(4), 283-297.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94.
- Olszewski-Kubilius, P., & Clarenbach, J. (2012). *Unlocking emergent talent: Supporting high achievement of low-income, high-ability student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Rogers-Dillon, R. (1995). The dynamics of welfare stigma. *Qualitative Sociology*, 18(4), 439-456.
- Sibicky, M., & Dovidio, J. F. (1986). Stigma of psychological therapy: Stereotypes, interpersonal reactions and the self-fulfilling prophe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2), 148-154.
- Smith, T. B. (1973).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 4(2), 197-209.
- Van Meter, D. S., & Van Horn, C. E.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445-488.
- VanTassel-Baska, J., Patton, J., & Prillaman, D. (1989). Disadvantaged gifted learners at risk for educational attention.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2(3), 1-15.
- Wyner, J. S., Bridgeland, J. M., & DiIulio Jr, J. J. (2007). *Achievement trap: How America is failing millions of high achievi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Lansdowne, VA: Jack Kent Cooke oundation Civic Enterprises.

ABSTRACT

An Analysis of Perceptions on the Gifted Education Policie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by Administrators of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in College

Chun Ryol Ryu¹, Jiyoung Ryu²

¹Senior Researcher, KAIST GIFTED, ²Director, KAIST GIFTED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administrators in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regarding gifted education policie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and derive improvement strategies.

Methods Based on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ors' policy perceptions were categorized into policy goal factors, program factors, institutional operation factors, and policy environment factors. A total of 16 administrators from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responded to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he current level for each factor was analyzed using a t-test and IPA.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the criteria for science gifted children of the underprivileged students, the nature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program for them are ambiguous, and the direction and standards for education of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are inconsistent. Second, administrato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onducting diagnostic assessments and analyzing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as a prerequisite for designing program structures. There is a need to expand basic academic support programs and mentoring programs to facilitate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ducators' understanding of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Conclusions For the continuous education of underprivileged gifted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ent situation, as well as a mentoring and counseling support system for emotional support, and to provide more active promotion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Key words Underprivileged Gifted, Policy of Underprivileged Gifted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dministrator, Academic Mentoring